



제 408 호 2015년 11월 25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cityansan](http://blog.naver.com/cityansan)

[t twitter.com/ansancityhall](https://twitter.com/ansancityhall)

[f facebook.com/ansancity3](https://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안산소식

안산시와 경기도가 함께하는
사할린동포 초청 축제한마당

04면 생태·관광

수인선 폐철도변 비밀의 공간
금개구리 생태공원

06면 문화·예술

‘제8회 안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금상 수상자 이창길 씨 인터뷰

10면 학교·도서관

제5회 안산시 독서 토론대회



지난 11월 14일 선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장나눔 행사가 열렸다. 아이의 밝은 표정처럼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는 봉사활동은 나누는 이에게도 행복이 된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함께하는 사할린 동포 초청 축제한마당 개최

전국 최초 11월 29일,
안산올림픽기념관서 축하공연

안산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산가족의 아픔과 무국적자로의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할린 동포 50명을 초청하여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모국방문 위로 행사를 연다.

모국방문 행사는 오는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 동안 안산9경, 민속촌, 서울시티투어 등 관광투어와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는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조항조, 강진, 김혜연 등 유명가수의 축하공연과 가족과의 만남행사를 진행하며, 부대행사로는 전통문화놀이체험과 장애인생산품의 홍보부스 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할린 한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로 영주귀국사업으로 한국에 들어와 사할린에 있는 자손을 볼 수 없었던 동포들이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사할린 동포들이 안정적인 고국 정착 및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각종 복지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사회복지과 (031-481-2208)

안산시여성합창단, 제28회 정기연주회 '바람이 분다' 공연

11월 3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11월 30일 오후 7시 30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안산시여성합창단이 '바람이 분다'라는 주제로 제28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안산시여성합창단은 1987년 안산시어머니 합창단으로 창단해 전국 규모 합창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바 있으며, 합창페스티벌과 각종 시 주관 행사 초청공연을 하며 지난 29년 동안 꾸준히 활동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합창단 명칭을 '어머니'에서 '여성'으로 변경하여 단원 입단 자격을 기존 어머니에 한정하지 않고 20세 이상의 미혼 여성까지 확대하면서 합창단의 입지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원년의 해로 삼아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되고 있으며, 이번에 열리는 제28회 정기연주회 '바람이 분다'에서 그간 닦아온 실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베토벤, 모차르트의 합창곡과 우리나라 가곡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가요도 무대에 올린다. 또한, 카운트 테너 정민호, 3인조 초록밴드, 현악8중주단이 협연자로 출연하여 합창연주회의 색다른 묘미를 더해주고 7080세대 가수 이치현의 특별 출연으로 40~50대의 향수를 달래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만추의 계절 11월의 마지막 날에 가을의 그리움을 합창으로 표현한 안산시여성합창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과 함께 하고 싶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했다. 본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 공연문의: 안산시 문화예술과 (☎ 031-481-2068)

주최 안산시 주관 안산시여성합창단 후원 현암전설(주)·우성환경(주)·(주)삼원색 문의: 031.481.2068

날씨와 상관없이 운동 즐길 수 있어요

본오2동 각골체육관 건립,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지원

* 각골체육관 이용시간

- 탁구 일일 입장 : 월요일~일요일 (6시~22시)
- 배드민턴 일일 입장 : 월요일~금요일 (6시~18시) / 월·수·목 18시~22시
- 대관 : 주말·공휴일 6시~22시(1회 4시간),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 전월 1일전 선착순 접수



상록구 석호로 400, 각골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됐다. 2004년 11월 건립 추진부터 개관까지 10여 년이 걸린 '각골체육관'은 27억 원(국비8억 원, 도비 6천7백만 원, 시비 18억4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240㎡ 2층 높이로 지어졌다. 배구 겸용 배드민턴장 4면과 탁구장, 다목적실, 관리실,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췄다. 또한, 주차장 78면과 족구장의 펜스 교체 등 각골운동장의 부족한 부분도 보완했다.

본오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체육관이 건립돼 11월 17일 체육관의 개장을 알리는 기념식에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기쁨을 나눴다. 안산시 관계자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했고, 상록수체육관의 에어로빅 팀, 본오2동 주민센터의 라인댄스 팀, 서울예술대학교 비보이 댄스 팀 오메가포스가 식전 공연을 펼쳐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

개장식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실내체육관이 생겨 날씨와 상관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평소에 주변 학교나 주민센터를 이용해 운동을 했는데, 가까이 체육관이 생겨 정말 좋습니다. 이 곳은 상대적으로 외지고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는데, 체육관 건립으로 사람 통행도 많아지고 동네가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며 본오2동 주민 민은남 씨는 반가워했다.

개장식 뒤에는 본오2동 돌고래배구단과 배구 동호인들로 이뤄진 동그라미 팀의 시범 경기가 이어졌다. 돌고래배구단은 안산의 어머니 배구단 중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는 팀이다. 주장 이미옥 씨는 "그동안 본오초등학교와 본오중학교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연습을 해왔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더욱 열심히 연습해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안산시 체육진흥과 전덕주 과장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각골체육관이 문을 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주민 분들이 문체 없이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생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운동은 필수다. 각골체육관 건립은 지역주민에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보다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 ☎ 031-481-2154
안산도시공사 ☎ 031-417-4802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경기육아나눔터'

11월 2일 상록어린이도서관 3층에 문 열어



이웃 간 소통과 교감 속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 돌봄 네트워크 '경기육아나눔터'가 지난 11월 2일 상록어린이도서관 3층에 문을 열었다. 경기육아나눔터

는 엄마들이 주체가 돼 자신들의 관심 분야 속에서 품앗이 형태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다. 경기도형 마을 돌봄 공동체 '온 마을 엄마 품' 사업의 한 가지로, 도

에서 리모델링 비용 1천만 원을 지원, 상록어린이도서관 휴게 공간에 101㎡ 규모로 조성됐다.

두 아이의 엄마 김정은(38세, 선부동) 씨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육아나눔터가 생긴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참여 신청을 했다. 또, 중앙도서관 육아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친해진 이웃 엄마들에게도 권해 정보에 목마른 엄마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들으며 리더로 참여하고 있다. "공간이 주어지니까 혼자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고요. 엄마들끼리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육아의 어려움을 덜 수 있어요." 와동에서 온 위소연(39세)씨는 "아이가 첫 애인 경우 도움이 더 크죠. 출산과 육아로 지쳐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 우울증을 겪는 엄마들도 많은데 이 모임을 통하면 떨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육아나눔터'는 주민이 자체 선정한 유휴공간이나 아파트 내 비어있는 주민편의시설 등을 육아 나눔터로 조성한

후 참여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형태다. 품앗이 활동으로 자녀양육 관련 정보도 나누고, 장난감, 도서, 육아용품 등 정보와 자원도 나눈다. 품앗이로 참여하는 부모에게는 그룹별로 재료비 등 소정의 품앗이 비용이 월 3만 원씩 지원된다. 육아 나눔 공간이 제공됨으로써 이웃 간 품앗이 연계가 가능해 어린이집과 가정 보육 등 현행 돌봄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돌봄까지도 지원 가능하다.

경기육아나눔터 관계자는 "자녀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과 나누고, 이웃끼리 서로 아이를 돌보며 양육하는 품앗이 형 육아 나눔터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범 운영 후 더욱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01-0033
경기육아나눔터 ☎ 031-406-0066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수인선 폐철도변 비밀의 공간, '금개구리 생태공원'



어린이 숲체험장과 관찰원, 최고의 생태교육 장소

광덕대로에서 중앙역까지 4호선 철길을 따라 이어진 수인선 폐철도변,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는 금개구리 생태공원이 있다. 중앙역 사거리에서 보이는 금개구리 조형물과 표지판은 이곳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가 발견된 곳을 말해준다. 11월에 찾은 금개구리 생태공원은 색색이 물든 단풍과 은빛 억새, 멀리 드리운 하늘을 배경으로 가을의 운치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금개구리가 동면에 들어간 빈자리를 카메라를 메고 출사를 나온 젊은이들과 연인들이 채우고 있었다.

과거 하천과 논, 습지가 산재해 있던 수인선 폐철도변 일대는 한국 고유종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었으나, 도시화에 따

른 서식처의 고립과 수질 오염 등으로 금개구리가 절멸 위기에 처했던 곳이다. 이 공간을 작년 K-water 시화호지역본부에서 금개구리의 서식처 보호와 시민들의 생태체험교육을 위해 조성한 것이 '금개구리 생태공원'이다.

이곳은 금개구리 관찰원, 어린이 숲체험장, 금개구리 서식처 보호지역, 금개구리 휴게쉼터로 꾸며져 있다. 공원 곳곳에 금개구리 확대모형과 개구리 캐릭터 조형물들이 꾸며져 있어 어린이들이 큰 흥미를 가지고 이곳을 돌아본다. 관찰원에는 금개구리와 그 밖의 다양한 양서류, 개구리의 생활상들을 소개하는 표지판도 잘 꾸며져 있어, 양서류 생태교육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연못을 자세히 살펴보면 올챙이들이 헤엄치

고 있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또, 광덕대로 사거리 쪽에 있는 어린이 숲체험장도 어린이들이 한번 발을 디디면 빠져나오기 힘든 공간이다. 긴 통나무 서너 개를 연결해놓은 다리, 그루터기 의자들, 수많은 조약돌과 나무 조각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작은 놀이 공간 등 세심하게 꾸며놓은 생태놀이터가 눈에 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놀이기구 하나 없지만 자연물만을 이용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더 창의적으로 노는 방법을 터득한다. 또, 숲체험장 뒤편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유용하게 이용된다.

나무를 그대로 사용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울타리문과 다리, 오두막 등도 자연물들과 어우러져 도심 한가운데에서 시골 느낌을 제대로 불러일으킨다. 소박해서 더 예쁜 울타리 문을 지나면 길가에서 갑작스럽게 개구리들을 만날까봐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오두막에 잠시 앉아 무렵에만 볼 수 있는 붉은 단풍과 고운 하늘빛을 느긋하게 바라보면, 도시에서나마 잠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틈을 찾게 된다.

생태공원과 4호선 철길 사이에는 휴길에 남아있는 오래된 수인선 철길도 볼 수 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나무와 철로 만들어진 녹슨 철길 위를 걷다보면 마치 시

간여행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다. 20여년 전만해도 이곳을 지났을 수인선 협궤열차의 모습을 어렵듯이 상상하며 영화 속 주인공처럼 철길 위를 걷는 재미도 이곳에 오는 묘미다.

이 공간의 주인공 금개구리는 길이 약 6cm로, 등 양쪽에 뚜렷한 2개의 금색 줄이 솟아 있어서 '금개구리'라고 불린다. 예전에는 금개구리가 논 옆 물길이나 연못에 흔하게 살았는데, 최근에는 농약살포로 인한 먹이부족으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멸종위기 생물로 보호받고 있다. 금개구리는 몸집이 작고 움직임이 둔해서 하루에 10미터밖에 이동하지 못하는데, 그러다보니 웅덩이가 말라 물이 없어지면 다른 개구리에 비해 더 많은 수가 줄어들게 된다. 금개구리의 산란시기는 다른 개구리보다 늦은 5월부터 7월 사이로, 10월부터 4월까지의 땅속 눈두렁에서 동면을 취한다.

온도에 민감해 환경변화의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는 양서류. 이곳에 양서류가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시내에서 가장 변화한 도로변 한가운데 멸종위기의 금개구리 서식처가 있다는 것은 소중한 지켜내야 할 일이다. '쓰레기 되가져가기'와 같은 작은 실천들을 통해 생태공원에서 금개구리를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정겹고 정겹다' 하늘, 바다, 길~ 3종 선물세트 같은 대부도 해솔길 4코스

대부해솔길 4코스 - 12.4km (소요시간: 3~4시간)

15통 마을회관 ▶ 쪽박섬 ▶ 메추리섬 ▶ 고래뿌리선착장 ▶ 대남초등학교 ▶ 대부도유리섬



거리에는 바람에 몸을 맡긴 나뭇잎이 가을을 아쉬워하는 나그네의 발길에 기꺼이 밝혀준다. 해솔길 4코스에서는 어떤 가을을 느낄 수 있을까? 설렘을 안고 길을 나섰다.

시원하게 뿜린 시화방조제를 지나 15통 마을회관(대부남동 775-1번지)으로 향했다. 포근한 날씨와 한적한 시골마을의 풍경이 오늘 걸을 길에 대한 호감을 불러 넣어준다. 이정표를 따라 마을로 접어들어 걷는다. 인기척은 없지만 청명한 새소리가 반긴다. 지기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음을 옮기니 눈앞이 시원해진다. 왜 쪽박섬이라 불리는지 알 것 같은 섬과 푸른 하늘, 늦가을을 즐기는 여행객들의 웃음소리가 들

리는 바닷가는 여유 그 자체다. 방조제 아래로 방향을 잡고 메추리섬으로 향한다. 메추리섬은 섬에 있던 마을 이름이 메추였다. 메추리섬의 섬이 메추리의 뽕쪽한 부리 모양이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지역주민의 삶과 생활양식이 깃든 정겨운 이름에 미소 지으며 걸으니 청춘불패 2세트장이 시선을 잡는다. 2011년 토요일 오후 KBS 2TV에 걸그룹 멤버 8명과 연예인들이 아름다운 대부도를 배경으로 대부도 구석구석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곳으로 현재는 청춘민박과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먼 바다를 응시하니 누에섬 등대 전망대와 풍력발전기

가 보인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걷는다. 대부도의 명물 포도밭과 내년을 기약하며 파릇하게 올라온 양파 순, 누렇게 익어가는 여주까지 산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에 취한다.

등굣은 어른스런 안부를 묻고 여유를 즐기며 걸으니 너른 운동장을 품은 대남초등학교가 나온다. 섬마을 선생님과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학교를 지나 중부흥을 향해 걷는다.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부남동 보건진료소를 지나 이정표를 따라 걷고 또 걷는다. 전망좋은 곳에 위치한 펜션에서의 휴가를 계획하고, 대부도 캠핑장에서 자연과의 하룻밤을 그리며 버킷 리스트를 꺼낸다. 대부도는 또 다른 여행을 꿈꾸게 하는

곳이라는 지기의 말에 크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해솔길 5코스와 겹치는 구간에 유리섬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을 돌아 해솔길 4코스의 종착지인 베르아델승마클럽으로 향한다. 푸른 하늘을 배경삼아 달리는 말이 여행자를 반긴다.

아름다운 바다와 편안한 산촌마을의 풍경을 원 없이 감상할 수 있는 해솔길 4코스, 누군가 왜 걷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길을 걸으면 진실한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안산의 기업탐방 III

여성의 꿈을 담은 한방팬티라이너 - 에도라 (Ever Dream of Lady)



여성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
20여 년 동안 여성건강 도우미 자처하며 한길 걸어

‘10명의 남자를 치료하는 것이 1명의 부인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말처럼 여성에게 발생하는 질병은 그 양상이 복잡하고 치료도 힘들다.

최근에는 마른 몸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 나이를 불문하고 ‘평생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도 흔히 한다. 마른 몸에 대한 집착은 아동·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남녀의 과체중 비율이 가장 크다 (OECD 최근건강보고서 2015). 살을 빼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살 빼는 약을 먹거나 설사약·이뇨제 복용, 식사 후 구토 등 부적절한 방법을 시도한 중고생의 비율도 여자 18.8%, 남자 13.4%였다.

지나친 다이어트는 여성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이며 불규칙한 월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규칙한 월경은 여성 개인의 신체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하며 더 나아가 가족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

20여 년 동안 여성건강 도우미를 자처하며 한길을 걸어온 라파엘 김정웅 대표를 만났다. 라파엘은 1993년 중국에 한외합작투자사를 설립한 후 2000년 본사를 안산으로 이전해 현재까지 여성용 한방 팬티 필터 ‘에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Q. 어떤 계기로 여성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A. 아내가 난치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병이 난 후 병원을 찾았지만 결국 아내를 잃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꺼

리다보니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병이 난 후 치료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지요. 미리미리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Q. 기능성 한방 팬티라이너 ‘에도라’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에도라’는 여성의 몸에 좋은 한약재 추출물을 원천 개발하여 1mm 두께의 천연 소재 레이온 부직포에 함유시킨 제품으로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4가지 유해균(칸디다균, 포도상 구균, 녹농균, 대장균)에 대한 항균검사 결과 99.9% 항균력이 입증되었고, 질 내의 유익한 젖산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등 국가 공인시험 연구원에서 우수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기존의 팬티라이너가 생리 전후에 사용하는 것과 달리 ‘에도라’는 하루 1장, 24시간 부착하는 것으로 많은 여성들을 괴롭혀온 생리통, 생리 불순, 잦은 염증, 분비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기능과 청결, 혈액순환을 도와 손발이 따뜻해지고 활력이 더해져 생체리듬이 회복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치료하려고 급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몸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는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솔직한 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유기농 식품으로 가족의 먹을거리를 신경 쓰는 것처럼 ‘에도라’로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Q ‘에도라’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여성의 건강은 개인의 안녕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성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20여 년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 내 주변부터, 안산시민부터 ‘에도라’를 사용함으로써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계획합니다. 안산 시민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당당히 서고 싶습니다.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과 집념을 들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으로 긴 시간 열변을 토해내는 김정웅 대표. 그의 열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본다.

·문의 : 라파엘 (☎ 031-484-4555)
홈페이지(<http://www.edola.co.kr>)

김은미 명예기자 (j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과일·채소



○ 단감의 효능

- 면역력 강화 및 피부미용 효과 : 감귤보다 2배 많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 감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 숙취해소 효과 : 감의 떫은맛 성분인 타닌의 한 종류인 디오스프린은 알코올을 분해하여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맛있는 감 고르는 방법

- 껍질이 깨끗하고 윤이 나는 감이 좋습니다.
- 전체적으로 색이 고르고 진한 감이 좋습니다.
- 꼭지가 황색이고 싱싱한 감이 좋습니다.

○ 단감을 먹을 때 주의사항

- 변비가 심한 분은 타닌이 많이 함유된 껍질과 씨앗 쪽은 피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단감과 꽃게를 함께 먹으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꽃게를 드시고 4~5시간 후에 감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생각나는 단감,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



‘제8회 안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금상 <호수공원의 여름> - 이창길 작

‘제8회 안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금상 수상자 이창길 씨를 만나다

안산시는 다양한 안산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천혜의 자연 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안산을 널리 알리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제8회 안산관광사진 전국 공모’를 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는 평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안산의 매력을 색다른 시각으로 담아낸 전국의 846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금상에 이창길의 ‘호수공원의 여름’이, 은상에 최원규의 ‘대부도 노을’과 최은아의 ‘튬울립 가득한 도시’가, 동상에 서병화의 ‘동주연전’, 신정숙의 ‘열정의 춤마당’, 하종규의 ‘반영’이 선정되었고, 68점이 가작과 입선을 했다.



“사진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라 마음을 담는 예술입니다”

그에게 사진이란 소통의 도구다. 눈이 아닌 가슴으로 담아낸 그의 사진 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하다. 음악과 사진의 매력에 푹 빠진 종합예술인 이창길. 그가 말하는 소통의 미학을 들어보자.

Q ‘호수공원의 여름’으로 금상을 받으셨는데요, 사진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A 정말 좋은 작품은 가까운 곳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 다녀도 봄을 보지 못하고/짚신이 다 닳도록 언덕 위의 구름 따라 다녔네/허탕치고 돌아와 우연히 매화나무 밑을 지나는데/봄은 이미 매화가지 위에 한껏 와 있

었네’라는 시와 같은 맥락이지요.

파란 하늘을 기다리며 매일 산보하듯 카메라를 둘러메고 다니다 얻은 장면입니다. 연못 위에 내리쬐는 빛을 찾아다녔어요. 노란 꽃들이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 풍경 속에 아이들이 들어와 작품이 되었어요.

Q 사진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A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되기 전입니다. 수족관에 담긴 수초와 물고기를 담아내고자 삼각대를 놓고 열심히 찍어댔어요. 그때 카메라의 매커니즘과 테크닉을 혼자 습득했다고 봐야죠. 그 이후 한동안 음악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손톱만한 쇠별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Q 음악인으로 오래 활동하셨다구요?

A 스무 살 때부터 ‘달무리’, ‘등불’이란 노래로 알려진 그룹 ‘영사운드’에서 키보드 연주자로 활동했어요. 40여 년 전이네요. 그때는 그룹 전성시대였어요. ‘해운대 그룹사운드 썸머 페스티벌’ 등 10만이 넘는 관중 앞에서 공연을 하던 일이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안산에 온 지 20년 됐네요. 목련꽃 핀 봄 해질녘 풍경이 떠오릅니다. 언덕빼기 야외무대 아래에는 봄꽃이 흐드러졌고, 바닥에 깔린 침목 위로 빛소리가 오케스트라 이상의 효과음을 내주었죠. ‘목련화’,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왈츠’를 연주하던 그때가 음악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입니다.

2005년에는 포티스(Forties)라는 그룹으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구요. 지금은 대학가 학사주점에서 음악을 즐기는 젊은이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Q 음악과 사진 중에 어떤 것에 더 매력을 느끼나요? 음악과 사진작업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A 음악이나 사진이나의 갈림길에서 고민한 적도 많았어요. 40년 음악인생에 불쑥 찾아든 취미가 저를 흔들고 있습니다. 순간을 담아 오래도록 남기는 사진사진의 매력에 빠져 음악에 올인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음악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인데 사진은 욕심 없이 즐기는 작업이라 좋습니다.

음악적인 감성은 사진을 찍을 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저

는 풍경보다 야생화를 주로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쇼팽의 감미로운 에튀드(연습곡)가 연상됩니다.

흔한 민들레가 렌즈에 담기는 순간은 연습실에서 나와 당당히 연주회의 무대 위로 올라간 쇼팽의 에튀드와 같다고 할까요….

Q 렌즈를 통해 보이는 세상은 어떤가요? 카메라에 담아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사진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한양대 인근에는 백로서식지가 있습니다. 오색딱따구리 등 새 둥지도 많고 민들레, 제비꽃과 같은 작은 들꽃을 앵글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일도 다 잊게 됩니다. 새를 기다리면서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참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갑니다. 제가 가장 좋은 상태니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는 시가 있듯 렌즈를 통해 본 작은 풀꽃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면 풀꽃들이 제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세상은 참 아름다워요.

Q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골든타임이라든가 사진 잘 찍는 노하우가 있다면요?

A 독일 사진작가 안드레 켈프케는 ‘사진은 독백이고, 나의 대화라 했습니다. 촬영된 것은 피사체이지만 실은 작가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 낸 산물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진은 자기의 내적 영상인 것입니다.

꽃을 찍을 때도 “아! 아름답구나”하면서 일방적으로 덮치면 안 돼요. 가슴으로부터 감동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동에 대해 셔터를 누르면 사진에 그 마음이 그대로 배어납니다. 꽃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진은 순간포착이 아니라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대상물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국민포인트와 골든타임이 없어요. 가까운 곳에서 언제라도 좋은 장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찍으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찍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음악도, 다른 어떤 예술이 그러하듯 좋은 작품 많이 감상하고 열심히 집중하는 건 기본일테구요.

“안산시민의 안녕과 복을 빌었어요”

마을축제로 진화한 전통문화... 잿머리 성황제, 별망성·팔곡당산 산신제 열려



잿머리 성황제



팔곡당산 산신제

11월 12일은 음력으로 시월 초하루, 성곡동 잿머리 성황당에서는 안산시민의 안녕과 복을 비는 성황제가 열렸다. 안산시가 공업도시로 변모하기 전 성곡동에 거주했던 마을 주민들이 제물을 마련해 제를 준비했다. 32년째 성황제를 이어온 박금분(75세) 당주가 향파리·대금·해금·장구·북 삼현육각을 대동하고 산신거리, 장군거리, 신장거리, 상산대감거리, 전당주대신거리 등, 제를 주관하며 안산시의 평안과 76만 안산시민의 안녕을 신께 빌었다.

성곡동에 공장이 들어서기 전 마을주민이었던 박명근(80세, 선부2동), 김금순(75세, 선부2동), 조원순(72세, 선부2동) 어르신은 성황제가 열릴 때면 빠지지 않고 참석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난다고 한다. “옛날 농사지를 때에는 집집마다 쌀을 건여 제를 올렸어요. 자손들 무탈과 사회 안녕을 빌었지요. 그때만 해도 잿머리 성황제는 성곡동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안산 전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성대한 잔치였

어요. 3월이면 성황제 준비를 위해 안산 인근지역까지 유가 행진을 돌았었고 10월 상달에 길일을 잡아 제를 올렸어요. 이곳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마을 사람들 모두 뿔뿔이 흩어졌는데 성황제에 오면 이곳에서 살던 시절 추억들이 생각나고 옛 이웃들도 만날 수 있어 좋지요.”라며 “성황당 저 쪽으로 주민센터가 있었다.”고 가리켰다.

독특한 발생설화가 전해지는 잿머리 성황제는 고려 성종 시대까지 연원이 올라간다. 내부시랑이었던 서희(942~998)가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던 중 잿머리 해안에서 배를 타고 하자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해봉산 아래 발이 묶인 서희의 꿈에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비 홍씨와 장모 안씨가 나타나 사당을 마련해 나라 잃은 한을 풀어달라고 했다. 서희가 사당을 짓고 위령제를 지내자 바다는 잠잠해졌고 아무 탈 없이 송나라에 다녀와 외교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 후 중국을 드나드는

사신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이곳에서 제물을 차려 놓고 정성을 드리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성황당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며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90년 개축한 것이다.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성황당은 안산시 향토 유적 제1호로 지정되어 1985년부터 이곳에서 가을성황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성황제는 2014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11월 13일 시월 초이틀에는 팔곡동 주민들이 올리는 팔곡당산 산신제가 있었다. 본래 팔곡동 산신제는 팔곡동과 반월의 7개 마을—우물골, 셋골, 담너머, 건지미, 남산들, 능앞, 선학골이 공동으로 지내던 제의였으나 현재는 우물골, 셋골, 담너머 마을 등 3개 마을이 주가 되어 치른다. 이날 팔곡당산 산신제는 낮 12시에 산지 당에서 천신께 제를 올린 뒤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신 산신당에서 마을 어르신 6명이 제관이 되어 전통 유교식으로 진행됐다. 겨울비가 내렸지만 팔곡동 주민 외에도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산신제는 사람들이 팔곡당산 초입의 담원 경로당에서 음복을 나누며 마을 잔치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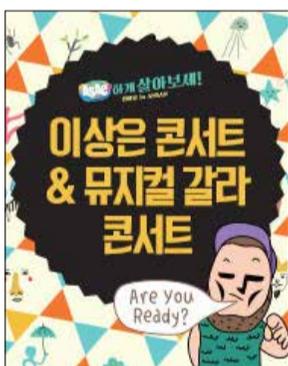
시월 초사흘인 11월 14일에는 조선 초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던 초지동 별망성에서 산신제를 올려 76만 안산시민의 안녕을 빌었다. 별망성은 초지동 해안가에 세워진 산성으로 6·25 전쟁 때 대부분 파괴됐던 것을 1988년 복원한 것이다. 이날 산신제는 전통 유교식 절차에 따라, 초지동 주민회와 많은 시민이 참여해 전통문화 계승의 역할을 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안산문화재단이 추천하는 12월 공연



ASAC '아식'은 AnSan Arts Center 이니셜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기획프로그램 브랜드입니다



〈콘서트〉이상은 & 뮤지컬 갈라 콘서트

- 공연일정 : 2015년 12월 4일(금) PM 8시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출연 : 이상은, 전수경, 이건명 등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 공연내용 : 1부는 '담다디'로 이름을 알린 가수 이상은의 무대로, 2부는 공연문화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뮤지컬 갈라콘서트팀 TOP의 무대로 이루어진다. 영상과 해설을 곁들여 진행되는 이 공연은 세계적으로 작품성과 흥행성으로 인정받은 맘미아,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캣츠 등 세계 최정상 뮤지컬을 한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 본 공연은 무료공연으로 2015 ASAC음악극(에릭 사티) 또는 ASAC(송년음악회) 유료티켓 소지자분들께 좌석 우선배정됩니다. 위 공연티켓이 없는 분들은 잔여석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신청가능합니다.(1인2매)

전화예약 : 안산문화재단 콜센터 080-481-4000



〈클래식〉노부스콰르텟_죽음과소녀

- 공연일정 : 2015년 12월 12일(토) PM 5시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출연 : 노부스콰르텟
- 관람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키움티켓 R석 12,000원, S석 6,000원
- 공연내용 : 젊은 현악사중주, NOVUS Quartet은 바이올린 김재영, 김영욱, 비올라 이승원, 첼로 문용휘 이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세대 솔리스트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세계 최고권위의 독일 ARD 국제음악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했으며, 한국 현악사중주 팀으로는 최초로 모차르트 국제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안산에서의 공연에서는 브리튼, 그리그, 슈베르트의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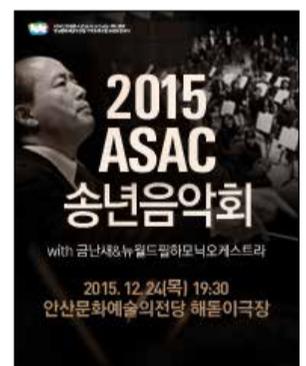


〈클래식〉벨루스콰르텟의 60분간의 세계일주

- 공연일정 : 2015년 12월 18일(금) PM 7시30분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출연 : 벨루스콰르텟
- 공연내용 : 전세계 다양한 음악을 클래식 콰르텟의 화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대표적인 음악을 선보인다. 연주와 멀티미디어(사진+영상)가 결합되어 해당 국가의 이미지, 영상 자료를 통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제작되어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이다.

※ 본 공연은 12.12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열리는 〈노부스콰르텟_죽음과소녀〉의 유료 티켓 소지자에 한해 관람 가능합니다.

전화예약 : 안산문화재단 콜센터 080-481-4000



〈클래식〉2015 ASAC 송년음악회

- 공연일정 : 2015년 12월 24일(목) PM 7시30분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출연 : 금난새,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관람료 :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키움티켓 6,000원(S,A석에 한함)

• 공연내용 : 〈2015 ASAC 송년음악회〉는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무대로 꾸려진다. 뿐만 아니라 테너 양인준과 소프라노 서할란이 출연하여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오페라 〈라보엠〉의 하이라이트와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준비 중이다.



'마을 숲'
사랑을 품다

볼거리 다양한 '화랑유원지' 이야기

누각에서 바라보는 화랑호수는 베어낸 연꽃 뿌리로 가득하다. 가장자리 나무 데크 산책로를 따라 갈대군락지가 가을을 지키고 있다. 저 멀리 단풍과 어우러진 와~스타디움이 보인다.

화랑유원지(622,175㎡)는 1998년 초지동 667번지에 조성되었다. 화랑유원지는 족구장, 농구장, 간이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호수와 중심광장 숲공원,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장은 3개소로 1주차장은 207대, 2주차장 822대, 3주차장은 302대를 주차할 수 있다.

화랑유원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소로 화랑호수를 꼽을 수 있다. 호수 면적은 151,189㎡로 둘레길을 만들어 시민들의 운동 겸 산책길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둘레길에 가로수로 심어진 벚나무의 단풍과 노랗게 물든 수양버들이 조화롭다.

매일 이 둘레길을 걸으며 운동을 한다는 시민은 "단풍을 즐기느라 세 번이나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오늘따라 단풍이 유난히 예쁘네요. 낮이 되니 삼삼오오 모여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네요."라며 활짝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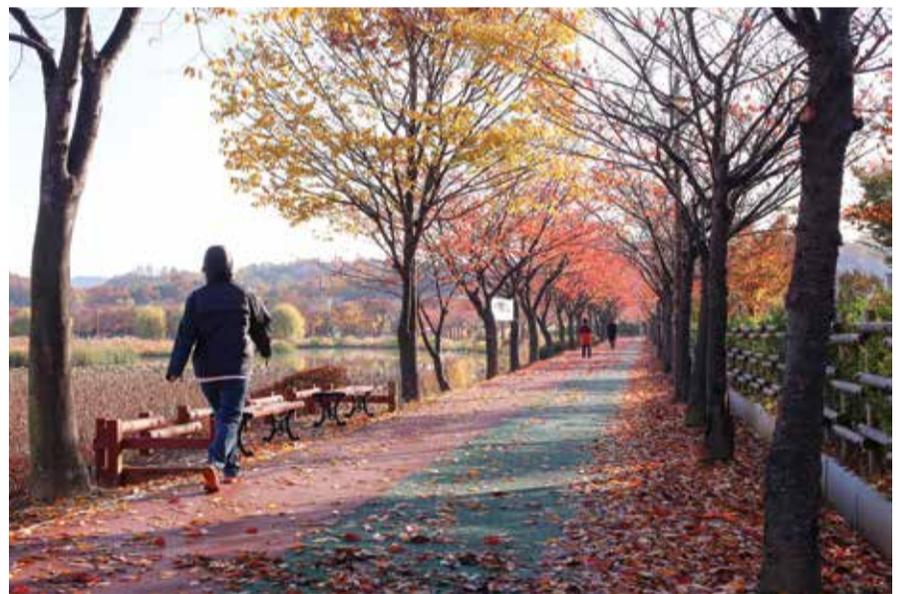
누각 쪽에서 제1주차장 쪽으로 아시아웨이(ASIA WAY)가 조성되어 있다. 아시

아웨이는 조형센터, 아시아지도가 그려진 바닥분수, 배 모형 광장, 다국적 국기 조형물 등이 설치돼 각 나라의 테마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웨이는 외국인들을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외국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조성됐다.

소나무 군락지를 지나 걷다보니 어린이 교통공원(2,793㎡)이 나온다. 교통공원 앞으로 자전거 교육장이 자리를 잡았다. 숲공원을 지나면 안산 화랑인공암벽등반장이 나온다. 지난해 3월 개장한 인공암벽등반장은 폭 24m, 높이 18m 규모로 국제공인 규격의 스피드 2면과 초·중·고급 코스와 연습용 암벽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트시설과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암벽등반장을 지나면 왼쪽으로 경기도미술관이 보인다. 잔디밭 벤치에 앉아있는 청동 동상에서 사진을 찍는 어린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뽀뽀를 해달라는 듯한 청동 소녀의 표정을 따라하는 서로의 모습에 즐겁다.

2006년 10월 개관한 경기도미술관은 경기도의 미래 자산이 될 현대 미술품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와 교육 활동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경기도미술관을 왼쪽으로 두고 직진을 하니 대공연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나온다. 노란 유니폼을 입은 유치원생들이 공연장에서 주차장 쪽으로 줄을 맞춰 걸어 나온다. 재잘재잘 단풍과 이야기하며 돌아가는 발걸음이 즐거워 보인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가장자리에는 단원각이 있다. 큰 종이가 매달려 있는데 새해를 알리는 타종식이 열리는 곳이다.

길을 따라, 숲을 따라 가는 곳마다 단풍이 물들었다. 11월에 수줍게 핀 노란 민들레가 발길을 붙잡는다. 또 한 계절을 나고 있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옛길의 정서를 간직한 '황토십리길'을 걷다



황토십리길은 옛 수인선 협궤열차가 다니던 철로 부지 양 옆으로 이어지는 갈림길로 상록구 이동·사동·본오동을 거치는 황톳길이다.

안산버스터미널 인근 한전사거리 앞-한대앞역-용신교-시곡중학교-본오2차아파트에서 되돌아 용신1교-용신교-KT-한대앞역-한전사거리로 이어지는 3.3km 구간이다.

현재 본오아파트부터 용신고가삼거리까지 수인선 복선전철 공사로 예전 천변

길은 막혀 있는 구간이 많아 마을 사람들은 운동하기 좋은 길이 없어졌다고 아쉬워한다.

용신고가삼거리에서 한국통신삼거리 방향 왼쪽으로 걸으면 충장로 옆 숲길이 나온다. 나무들 사이에서 장승들이 고목처럼 서 있다. 험상궂은 얼굴로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과 배가 볼록한 여장군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 플라타너스와 벚나무, 은행나무길에서는 옆 도로의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한대앞역 굴다리 작품공간 '도심 속 문화갤러리'가 나온다. 단원 김홍도의 정신과 전통적인 조형성에 현대의 조형성을 혼합해 표현했다.

한대앞역 예술과 삶이 만나는 통로를 지나 철길 따라 다시 숲길을 걷는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 나타난 부부의 뒷모습이 다정하다. 바퀴 달린 장바구니와 비닐봉지를 든 부부는 황톳길 아래 자전거

길을 이용한다. 그 옆으로 교복 입은 학생들이 한 무리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집으로 가는 길, 소달구지가 다녔을 마을길에 정감이 스민다.

단풍 든 메타세쿼이아가 석양별에 더 붉어지는 길 끝에 약 400년 수령의 느티나무 보호수가 서 있다.

인근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동료와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왔다가는 이새로미 씨(29세, 사동)는 "안산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내가 사는 고장에 이런 멋진 풍경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울긋불긋 낙엽 떨어진 길이 정말 아름다워요."라며 연신 감탄을 했다. 매일 황톳길을 걷는다는 서옥수 씨(66세, 일동)는 "보호수 밑에서 무속인들이 굿을 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놓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때마다 참견을 하고 말려보지만 이것 보세요."라며 울타리 안 흙더미 속에서 작은 슬리퍼 한 켤레를 꺼내온다. "400년

이상 마을을 지켜온 나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냐."며 한숨을 쉰다.

높이 21m, 둘레 4.3m의 느티나무(이동 353-9)는 어업의 전초기지였던 옛 조기나루 마을에서 한국전쟁을 겪은 후 농촌이 된 마을의 역사를 간직한 산증인이다. 단춧날이면 마을 아낙네들이 그네를 뛰며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였던 당산나무 가옻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400년 넘게 아름다운 그늘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내뿜는 숨을 들이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들숨으로 되돌려주는 나무는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메신저다. 낙엽 쌓인 황톳길을 다시 되짚으며 나무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길에 대해 생각해본다. 앞을 비워낸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이 파랗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자연에 물들다

나무가 숲을 만나 웃고
갯벌이 바다를 만나 숨 쉬는 곳

사람이 자연을 만나 마음을 열고
자연이 사람과 함께 행복을 꿈꾸며

사람을 담고 자연을 닮은 이곳은
자연마을 안산시입니다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 중심 안산특별시

제5회 안산시 독서 토론대회

안산시 토론꾼들, “작가 앞에서 긴장됐지만 뜻 깊은 추억 만들었다”



지난 11월 7일 중앙도서관에서는 ‘제5회 안산시 독서토론대회’가 열렸다.

이번 독서토론대회는 초·중·고·일반 부문 95팀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10월 31일 예선을 거쳐 부문별 16팀씩 총 64팀을 선발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은 중앙도서관 범 시민독서운동 ‘한 도시 한 책 읽기-나, 너, 우리 함께’ 선정도서의 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초등부는 도서 「수상한 아파트」; ‘더불어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논제로, 중등부는 「괴담」; ‘아이들은 괴담을 이용하였다’, 고등부는 「까칠한 재석이

가 열받았다」; ‘청소년은 사회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일반부는 「투명인간」; ‘개인의 가치는 타인에 의해 평가된다’라는 논제로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입론과 반론을 펼쳐나갔다.

찬성측이 입론을 마치면 부정측에서 교차질문을 하고, 이어 부정측 입론 후에는 찬성측이 교차질문을 하는 사이사이에 반대팀에서는 작전타임을 요청하며 숙의시간을 갖는 ‘칼 포퍼’ 방식의 토론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입론에서 논의 배경, 용어정리, 쟁점사항을 제시했고, 초등부 논제의 긍정측 ‘수상한 에이스팀’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보다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반화의 오류’ 등 심리학적 용어와 학생인권조례, 책을 펼쳐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토론 도서를 쓴 고정욱·방미진·박현숙 작가가 심사를 맡았고, 토론자들은 작가 앞에서 토론을 해야하는 긴장감에 떨기도 했지만 더욱 큰 의미와 추억을 간직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진행을 맡은 토론연구개발원 오미아 수석코치는 심사평에서 “논제를 분석하는 능력과 설득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며 “학생들이 토론을 즐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등부 심사를 맡은 고정욱 작가는 “디베이팅은 말로 싸우는 것이다. ‘내가 죽느냐, 적이 죽느냐’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례를 굽어모아 상대방의 허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자신의 입장에 상대방이 동

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좀 더 치열하고 불꽃 튀는 토론을 하기 바란다.”며 아쉬워했다.

박현숙 작가는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가로서 배울 점도 많았어요. 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 온 참가자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부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팀에게는 안산시장상이, 입선1팀에게는 토론연구개발원장상과 상패가 주어졌다.

이날 초등부-토도생, 중등부-달빛마루, 고등부 아고라, 일반부 수평사고 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고라(동산고/김예지, 윤지예, 한경지)팀은 “어른으로 가기 전에 좋은 경험을 갖게 되어 기쁘요. 책 한 권을 긍정측과 부정측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 쌓으며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회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작가의 사인을 받고 작가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상기원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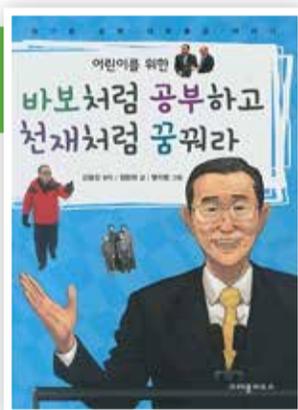
•문의: 중앙도서관 ☎ 031-481-3866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책 읽는 안산’ 11월 추천도서 2 (주제: FUN해서 더 알고 싶은 고수의 공부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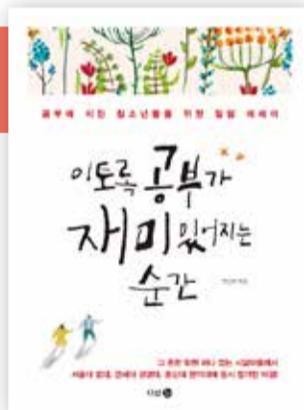
아동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정란희 외 / 크레용하우스

알파벳도 모르고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대한민국 대표가 되어 미국 연수를 떠나게 된 과정과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돼지 치는 일까지 맡아야 했지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며 환경을 극복하는 반기문 총장님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목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희망과 의지의 불씨를 피어오르게 한다.

청소년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박성혁 / 다산3.0

우리가 공부에 열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학원 하나 없는 전라남도 시골마을에서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 하나로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최고의 대학들을 동시에 합격한 저자가 청소년들을 위해 공부에 대한 본질을 명쾌하게 풀어낸다.

성인



그물망 공부법
조승연 / 21세기북스

저자는 프랑스 여행 중 들른 소르본대학에서 고서(古書)를 든 대학생들을 보면서 지식의 세상에 대해 부러움을 느꼈다. 그들이 보던 고서는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던 공부의 범위를 깬으며 오랜 시간 전의 지식과 현재 지식 모두를 아우르는 공부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후 저자에게는 시공간을 넘는 모든 지식이 공부의 소재가 되었다.

•자료제공: 중앙도서관 ☎ 031-481-3868

작은 손으로 행복을 빛는 봉사자

안산고등학교 2학년 우수정 학생

“어른이 되기 전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희 부모님께도 잘해야겠다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을의 끝자락을 넘어서면서 비가 축축이 내리는 일요일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우수정 학생은 요양원으로 향한다. 2015년 3월 봉사활동 시간이 모자라 요양원을 찾은 것을 첫 계기로 지금까지 꾸준히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요양원에서의 첫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여기저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큰 소리로 웃고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청소만 하고 가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저를 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시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기 어려워 찢찢때때 보냈던 시간, 그 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되돌아 나오면서 다음에는 오지 말아야지 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며 수정 학생의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아무래도 그날이 생각나서 부끄러웠는지 미소를 던지고는 할머니, 할아버지 곁으로 가서 앉았다. 눈을 마주하

고 끊임없이 손을 만지작거리며 방실 방실 웃어대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기억속의 어색함과 수줍었던 첫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식사시간이 되자 능숙하게 할머니의 손가락에 반찬을 올려놓는다. 나물을 좋아하지 않아 잘 드시지 않는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투정을 부렸다. 할머니의 밋지 않은 투정도 수정 학생은 씩웃 미소 한방으로 날려버린다.

“또 왔네, 또 왔어. 비오는데 웃은 안졌었구?” 라고 말을 걸며 어르신들은 마치 친손녀가 온 듯 수정 학생을 반갑게 맞는다.

혹여 눈빛이 머무르지 않아 서운해 하실 분들이 있을까 걱정하며 수정 학생은 틈 없이 움직이고 있다.

내년이면 고3이 되는 수정 학생은 “시간을 내어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꼭 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어른이 되기 전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희 부모님께도 잘해야겠다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라며 요양원을 나섰다.

요양원을 나서는 수정 학생의 뒷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봉사자의 역할 중에 인간성 회복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봉사시간은 아이들에게 숙제와도 같은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미루기도 하고 억지로 베끼기도 하는 것이 숙제이다.

그러나 숙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희망한다.

김선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우리 지역의 동아리

내 마을의 아름다움 내가 알려요! ‘벚꽃사2’ 사진동아리

마을 앞 노점상에 주인장과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부동산 앞을 가로막아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 덩그러니 놓인 자전거는 의자에 앉아 있는 청일점 할아버지가 타고 왔을까. 의자에 혹은 길 가장자리에 걸터앉은 평화로운 모습은 ‘벚꽃사2 사진 동아리’ 사진 속 풍경이다. 길까지 내려온 담쟁이와 미처 여물지 못하고 떨어진 감들이 만들어내는 초록의 풍경도 멋지다. 풍성한 야채들의 사진도 사2동에서 찍었을 것이다. 보라색 야채와 누런 호박, 당근, 청록색의 호박, 오이, 고추, 여주 등 가지각색의 야채들도 사진 속에 근사하게 자리를 잡았다. 보도블록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과 균열되고 덧입혀진 시멘트 자국까지도 사진의 소재가 된다.

내 마을을 찍어 내 마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사랑하자는 의미로 사진을 찍고 있는 ‘벚꽃사2 사진동아리’ 회원들의 전시장은 사2동이 가득 담겨있다.

‘벚꽃사2 사진동아리’는 지난 6월부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사2동에서 추진된 동아리 중 하나다. 지난 6월 27일부터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12회에 걸쳐 흥경표 사진 작가와 수업을 했다. 그리고 첫 전시회를 열만큼 열정적으로 사진에 푹 빠져있다.



김원경 회원은 “저희 가족은 캠핑을 다니는데 DSLR을 구입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현수막을 통해 사진 동아리 모임과 강좌가 있다는 걸 알고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포즈를 하든 무조건 찍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되었네요. 제게 사진은 작품성을 떠나 개인 만족인 거 같아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내가 직접 찍어 길이 간직할 수 있어 참 잘 배웠다고 칭찬하고 싶어요.”라며 작품 속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민재 회장은 “주말에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찾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인물이나 풍경 위주로 사진을 찍었었는데 동아리에서 사진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사물의 아름다움도 예술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좋은 계기로 동아리를 시작하게 됐으니 우리 동아리가 마을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곡선으로 찍느냐 직선으로 찍느냐 등의 구도와 빛을 이용하는 법, 어두울 때 찍는 방법 등 사진을 배우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

다는 회원들. 사진을 배우다 보니 유독 사진 찍는 사람들이 눈에 잘 띄고 더 관심이 가게 된다고 회원들은 말한다. 카메라를 둘러메고 마을을 산책하는 시간이 이제 낯설지 않다는 회원들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사진동아리 회원이자 통장인 이수남 씨는 “사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수강하며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고 시간이 넉넉지 않은 젊은 엄마들을 위해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 분소가 있었으면 했는데 바람대로 분소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진 동아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원래 사진 찍기를 좋아했는데 사진 동아리에서 체계적으로 사진을 배우니 참 좋아요.”라며 더 많은 사람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며 사2동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벚꽃사2 사진동아리 첫 사진전이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이란 주제로 12월 4일까지 사2동 작은도서관(상록구 사동 1472-13)3층 분소에서 열린다.

이선희 명예기자 (kiamyou70@hanmail.net)

브라운안산은 시민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매호마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를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 481-2042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산시의회 이모저모



안산시의회 신성철, 김동수, 김재국 의원 1일 명예교사로 '눈높이 소통'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1일 명예교사' 활동을 통해 지역 학생들과 소통하고, 정치인 및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신성철 부의장은 대부중·고등학교 청운관 강당에서 학생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수업을 실시했고 김동수 의원은 시의회의 기능에 대한 소개와 안

산의 자랑거리, 정치에 입문한 계기 등을 소탈하게 풀어냈으며, 아울러 세월호 사고를 겪은 자신의 아들이 최근 수능시험을 치른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재국 의원도 12일 덕인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교사로 나서서 '장래희망으로서의 정치인'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안산시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 서울반도체·CJ서 현장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인재 채용 적극 당부

안산시의회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지역 유수의 기업 2곳을 방문,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안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고와 애로사항을 전해들은 위원들은 주차장 문제의 경우 공원 지하 공간 활용 등 확보 방안을 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기로 했으며, 아울러 업체 측에 지역인재 고용 할당제를 도입, 안산의 유능한 청년인재를 일정 부분 채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반도체 측도 능력 있는 지역 인재의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규 특위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 기업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날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은 즉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안산의 인재들을 적극 고용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모델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 다시 새로운 시작

416가족협의회 대표 "그동안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것 같다"



수능이 치러지던 지난 11월 12일,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1년여에 걸쳐 끌어온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한 이번 판결에서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들은 1년 반에서 12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았다.

작년에 열린 1심에서 이 선장은 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 퇴선 명령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조타수와 3등 항해사의 조타미숙을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항해사와 조타수의 과도한 급변침을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본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에 대해 '최대 적재 화물량 초과 및 고박불량 등의 업무상과실과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결합했기 때문에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은, 끝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된 것"이라며, "선제인양을 통한 정밀조사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에서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대표는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을 안전하게 퇴선시킬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도망친 이 사건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이 같은 상식이 받아들여져 그동안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세월호 관련 형사 사건은 모두 종결됐지만,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배·보상을 거부한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아직 남아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가정은 모두 131가정으로, 희생자 가정 111가정, 생존자 가정 20가정, 총 원고인 수는 425명이다. 416가족협의회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다."며 "그래야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거듭 반복되는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뉴스 미란다 원칙

브라보안산에 게재된 내용중
문의사항, 반론, 정정 요청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부서 및
안산시청 공보관실
(031-481-204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투/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등불 비춰주는 안산시민들



며칠전 우리 안산의 삼화페인트 이웃사랑모임, BMB산업, 안산광림푸드뱅크 이렇게 3곳이 경기도로부터 나눔 활성화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돼 '나눔 문화 확산'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 어떤 미사여구로도 다 설명이 안되는 아름다운 분들이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과 소년소녀 가정에 매월 2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고 식료품도 드렸다고 한다.

물론 이분들 말고도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우리 안산의 숨은 천사들 모두 다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다.

그렇잖아도 며칠전 안산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짜장면을 대접하는 행사를 갖는 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해 감동으로 남아있던 터였다.

아이와 함께 민원서류를 하나 떼려고 들렀는데, 많

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다같이 맛있는 짜장을 즐기시길래 무슨 잔치가 열렸나 싶어 봤더니 어르신 식사대접 봉사활동이었다.

순간 '이것도 교육이다' 싶어 아이더러 직접 가서 어떤 분들이 이런 행사를 준비했는지 물어 보도록 시켰다.

아이가 5분만에 돌아왔다. 짬뽕식당을 운영하시는 분과 로터리 클럽,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에서 함께 마련한 행사라고 했다.

"너, 저분들이 저렇게 하면 누가 수고비나 그런거 주는게 아닌거는 알지? 저런 모습이 바로 더불어 사는거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도 멀리 있지 않잖아. 아주 가까이 있는거거든"

내 말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다. 인생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은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한다.

첫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둘째는 좀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셋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한다.

나는 바로 이 세 번째 후회에 대해 말하고 싶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모 잘 만나 남부럽지 않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굶어 모으고 움켜 쥐어봐도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데... 왜 좀 더 나눠주지 못했고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라고 후회한다는 것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경기 침체는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게 만들기 때문에 외로운 분들의 삶은 더욱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나눔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때인지 모르겠다.

이제 곧 연말연시다.

형편이 조금 어려운 우리 안산의 이웃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안겨주는 온정의 손길이 연말연시에만 몰릴게 아니라 사시사철 항상 온누리에 퍼졌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훈훈한 인심으로 쌀을 뒤주에 채워 넣으면 어려운 사람이 퍼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확산되고, 항상 불우이웃을 향해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안산시였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돌아섰다.

권순도 (단원구 선부동)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아리송한 맞춤법을 알려주는
'브라보 Talk'

올해 수능이 예상보다 어려웠는데 넌 어땠니? 오전 10:00

모의고사와 난이도가 비슷할 거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준비했는데 달라서 당황했어요. 오전 10:00

그랬구나. 그래도 너만 어려운 게 아니었을 테니까 너무 마음 **조리지** 마. 오전 10:01

네. 어쨌든 시험이 끝나니 후련해요. 오전 10:01

그렇지!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 오전 10:02

네~ 감사합니다. 오전 10:01

전송

가나다라마노비르르르-이
ㅋㅋㅋ스오스웃크트프하하

조리지는 '졸이지'라고 써야 맞습니다.

'졸이다'는 ①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이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다.
② 주로 '마음', '기슴', 따위와 함께 쓰여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합니다.
예) 찌개를 졸이다 / 약속 시간에 늦을까 가슴을 졸이다

'조리다'는 ①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
② 식물의 열매나 뿌리, 줄기 따위를 꿀이나 설탕물 따위에 넣고 계속 끓여서 단맛이 배어들게 한다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합니다.
예) 생선을 조리다 / 딸기를 조려 잼을 만들었다

바래는 '바라'로 써야 맞습니다.

'바라다'는 ①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
②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한다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합니다.
예) 너의 합격을 바라 / 무엇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었어

'바래다'는 ①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② 배웅하거나 바라보다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합니다.
예)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 / 친구를 역까지 바래다주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Photos in A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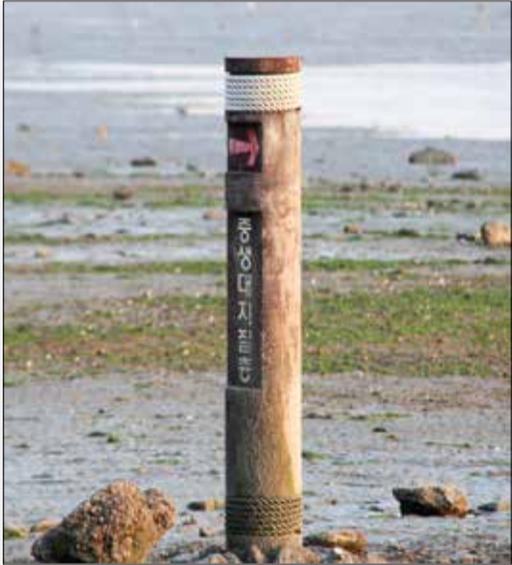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안산

대부광산 '중생대지질층'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대부광산 '중생대지질층'

• **한줄 정보** 대부광산 채석장이었던 이곳은 1997년 공룡 발자국 화석과 중생대 백악기의 동·식물 화석이 20점 이상 발견되며 2003년 9월 4일 경기도기념물 제194호로 지정되었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한줄 정보** 지난 11월 12일, 수능시험이 치러졌던 경안고등학교 앞 풍경을 담았다. 올해 수능 응시자 수는 지난해보다 9천434명이 줄어든 63만 1천187명으로 집계되었다.

안전한 사회만들기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며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재난사고를 예방, 사건사고를 경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만화를 게재한다.

자료제공 :  **국민안전처**

백화점에서 생긴 일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는 순간



이런 경고 문구는 붙여놓았지만 신발 끼는 문제는 소홀히 했네요.

잠깐만요 저기 좀 보세요.

고객님, 스카프 조심하세요.

머리 내밀면 안 돼!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반드시 아이 손을 잡아주세요.

에스컬레이터 탈 때 조심할 게 많네.

에스컬레이터에서 걷다가 죽을 수도 있다?

지난 5년 동안 에스컬레이터 안전 사고로 601명이 부상을 입고,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출 때는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 이 때 만약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걷거나 뛰고 있었다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 앞으로 튀어나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즉사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걷거나 뛰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백화점 보석 코너

앗싸 첫 월급!

박사에게 줄 반지를 사야지.

반지는 나중에 사고...

너그알종 그만방사...

재부터 좀 구해줘!

어린애잖아!

에스컬레이터에서 걷는 게 얼마나 위험하더구요!

다들 걸어다니는구만. 웬 참견이람?

계단에 앉거나 맨발로 타도 안 돼요. 화물을 싣거나 계단에 놔도 안 되고요.

오~ 왕박사도 없는데 어떻게 다 알아?

나 요즘 열공 중이잖아. 박사한테 잘 보여야지.

합격하면 한턱 쏘게.

어허- 엘리베이터 버튼을 모두 누르면 못 써요!

13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반기 디자인은 끝났어!

진짜긴 알바다.



왕박사의 한마디

아쿠아슈즈 신고 에스컬레이터 탈 때 특히 조심하세요

에스컬레이터는 디딤판과 스킵트 패널 사이에 약 6mm의 틈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틈새라도 디딤판은 움직이고 스킵트 패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력을 갖고 있는 재질이 닿을 경우 말려들어 가는 형태로 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흔히 신는 운동화나 아쿠아슈즈는 좁은 틈새로 말려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고무창이 부드러운 데다 마찰계수가 높아 무거운 실리엔 마찰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쿠아슈즈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지는 아세요?

아저씨 말 잘 들었지? 손잡이 꼭 잡고 양전히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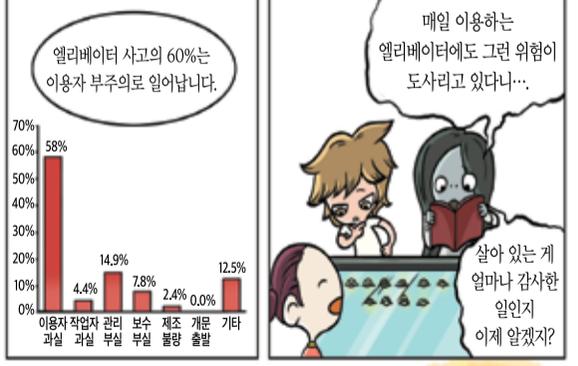
그... 그래요?

네!

양전히 있어야지.

인터폰이나 비상정지 스위치를 장난으로 눌러다가 사고날 수 있어요.

뛰거나 심한 장난을 하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고요.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 좀 불쌍해 보이잖아.

그래도 덕분에 엘리베이터를 이겼구!

그동안 진심으로 고마웠어. 왕박사에게도 내 마음 전해줘. 안녕. 내 사랑.

헉! 네 몸에서 빛이 나!

상록 / 단원어린이도서관 12월 주말 영화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상록어린이도서관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12월 5일(토)	12월 12일(토)	12월 19일(토)	12월 26일(토)

안산시 감골도서관(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상록어린이도서관 지하 어울림방**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감골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어린이도서관(☎481-3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12월 5일(토)	12월 12일(토)	12월 19일(토)	12월 26일(토)

안산시 관산도서관(단원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단원어린이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어린이도서관(☎481-38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안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 **장애인생산품 구매**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따른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전액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됩니다.

• 안산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현황

시설명	소재지	생산품목	연락처	품목단가
해동일터	사2동	유니폼, 작업복 등	501-3830	티셔츠 7천원부터 작업복 1만7천원부터
빛과동지	부곡동	천연비누, 친환경세제	405-0957	천연비누 2천원 주방세제 6천원
푸른동산	사2동	베이커리, 천연비누, 더치커피 등	406-8702	롤케익 8천원 더치커피(2병) 1만5천원
안산밀알	초지동	무한잉크프린터 임대, 재생카트리지	402-2484	월 3만3천원~5만5천원
행복한학교	고잔동	베이커리, 원두로스팅, 더치커피 등	070-4352-1591	파운드케익 1만원 더치커피(1병) 1만7천원

문의 : 안산시 사회복지과 (☎ 481-2879)



「따뜻한 에너지의 행복한 전달」
에너지바우처
11월부터 신청하세요

“국민 행복을 위해 올 겨울부터 따뜻한 난방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면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급~6급 중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용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81,000원	102,000원	114,000원
신청기간	2015년 11월부터 ~ 2016년 1월말까지	사용기간	2015년 12월부터 ~ 2016년 3월말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족, 친족 또는 담당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우리동네 416 이야기방

별이된 아이들은 화랑유원지의 나무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우리아이들의 고향인 안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릴수있게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눠주세요.
세월호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416이야기방에 모여 함께 이야기 나눠요.

우리동네 416이야기방 신청 031)411-6150, 010-8867-4567

시간, 장소, 형식 다양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위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0416세월호가족협의회, 세월호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 